

연중 제6주일 복음나눔기

“그는 나병이 가시고 깨끗하게 되었다.”(마르 1,40-45)

1. 성호경
 2. 시작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
 3. 자기소개와 한 달의 삶 돌아보기(각자 어떻게 지냈는지 나눕니다)
 4. 준비기도<각자 자유롭게>
 5. 독서 (성경읽기 I) - 마르코 요한 1,40-45
-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0-45

40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 예수님께서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42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43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44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45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세밀한 독서 나눔

- 한 사람이 성경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다 같이 큰소리로 읽어도 좋습니다)
- 모두 들은 후, 각자가 성경 말씀을 한절, 한절 세밀히 읽습니다.
- 처음부터 단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읽습니다. 의미 있는 단어, 반복되는 어휘나 문장을 주의 깊게 읽으며, 성경의 다른 곳에 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지 기억하도록 합니다.(약 5분 정도)
- 한 사람씩 그 단어나 구절을 아주 천천히 세 번씩 반복하여 외칩니다.
- 단어나 구절을 선택하게 된 동기를 돌아가며 발표합니다.
- 세밀한 독서가 끝나면 성경 해설 부분을 서로 돌아가며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해설 >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병환자가 성한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레위 13,45 이하) 또한 사람들이 멀리에서도 나병환자를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머리카락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나병환자들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나병환자에 대한 율법과 사회 전통으로 볼 때, 나병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환자 한 사람이 ‘감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으로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라는 표현에는 나병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즉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며, 그 고통을 없애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의 첫 단계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스어로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란 말은 원래 ‘오장육부까지 감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병환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손을 내미십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러나 치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대하지는 않습니다. 손을 건네시면서 그의 몸을 만지십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병환자를 손으로 만져 불결해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의 가슴에 쌓인 한과 응어리를 보십니다. 또 나병에 걸린 몸을 만져 주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자기 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람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병에 걸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버리고, 쌓인 한과 응어리를 마음에 품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모습대로, 이에 어긋나지 않게 살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모상을 흐리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 두라는 뜻입니다.(50가지 예수 모습, 안셀름 그윈. p.p.78~79 발췌, 요약 분도출판사 2004) 그리고 나병환자는 곧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병환자가 다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관에게 치유 사실을 인정받은 다음 제사를 바쳐야 했습니다. 성전에서 봉직하는 사제가 그 치유사실을 공인한 다음에야 다시 종교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사람에게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이를 널리 전파하고 퍼뜨렸습니다.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선포하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이 사람은 복음 선포자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의 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치유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등이 굽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일으켜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아들여 줌으로써.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람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느끼며,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를 사랑해 봅시다.

※ 목상나누기

- ❖ 우리는 마치 나병에 걸린 듯 자기 자신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 보여 드리며, 나의 상태, 상황, 처한 위기, 절망, 고통 등을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나누지 마시고 눈을 감고 2~5분 정도 침묵 중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유를 받는 나병환자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 ❖ (구절이나 말씀나누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미소를 지음으로써, 또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나눔으로, 또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서로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유의 능력을 사용했던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던 경험도 나누어 봅시다.

6. 되새김(성경읽기 II)

☞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기도와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는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다른 누군가가 또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7. 마침기도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8. 안건토의

9. 기타토의(공지사항)

10. 마침성가(생활성가를 추천합니다)